

인생의 '명답' 있을 뿐 '정답'은 없다

직할교구말사주지 연수 (주제 : 현대인의 공감코칭)

소설가 김홍신 특강

김홍신 소설가는 11월 2일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공감코칭'을 주제로 인문 강연을 펼쳤다. 김 작가는 "열등감은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면서 "한국인들의 명품·성형 중독도 열등의식 중 하나다. 남에게 보여주는 것에 급급하다 보니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위대한 성장과 업적을 이뤄냈다. 역사적의식을 되찾아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정답을 찾으려고 행복을 버리는 사람들을 위해 스님들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리=박이름 기자

지식 아닌 '지성' 갖출 것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정은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전설에 '부상가'라는 남신이 '야상가'라는 여신에게 청혼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졸곧 청혼을 거절하던 야상가가 부상가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밝고 가장 어두운 것이 무엇인지 알아오면 청혼을 받아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상가는 1만년동안 정답을 찾아 헤맸는데도 알지 못합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천신이 가혹한 부상가의 정성에 정답은 '마음'이라 알려줍니다.

본래 지성과 교양, 종교적 찬탄의 의미는 어둠으로부터 함께 밝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 밝은 곳을 발견해서 홀로 걸어간다면 그것은 '지식'이지 '지성'이 아닙니다. 혼자 잘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더불어 사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동굴에서 문을 열고 나와 밝은 곳을 발견했다면 다시 동굴 속으로 들어가 그 안에 함께 있던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이 바로 종교의 큰 덕목입니다. 모두에게 밝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 '지성'으로 가는 중요한 지름길입니다. 동물세계에서는 몸이 나약해지거나 늙고 병들면 그들의 세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직 인류만이 나보다 약하고 뒤쳐진 사람들을 함께 끌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발전한 것입니다. 약육강식의 세계에는 생존본능만 있을 뿐 종교와 같은 가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약자를 치료해줄 의사, 제약사, 또 약자를 보호할 경찰 등이 있습니다. 그 와중 종교는 어둠 속에 있는 영혼을 밝은 세상으로 끌어 올리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지난날 OECD가 발표하 바에 따르면 국민 행복도가 143개 국가 중 118등입니다. 경제는 놀랄만한 성장을 거뒀지만 행복도는 최하위권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한국인들이 두뇌가 너

무 좋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머리가 좋으니까 이루고자 하는 욕구는 팽창을 하는데, 만족은 늘 멈추거나 후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구 대비 만족이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이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란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인품, 학력, 집안, 자동차 등 외부적인 모든 것을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열등감에 쉽게 빠집니다. 저는 이 열등감이 바로 불행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수년전 오클라호마주립대 연구팀이 약 4년 동안 침팬지에게 140여개의 단어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침팬지가 자신의 의견을 간단히 말할 수 있게 됐고, 침팬지가 내 발은 첫 말이 'Let me out(나를 놓아 달라)'는 말이었습니다. 바로 자유를 갈망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늘 정신적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 애를 쓰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종교적 가치가 필요한 것이고 스님들의 존엄성이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산업이 발전하면 정신적 문제가 흩어집니다. 이것을 지켜내고 정신적 주인노릇을 할 수 있도록 스님들이 중심적 역할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랑스런 대한민국 민족사

'국격'은 무엇일까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 종교, 철학, 역사,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한 국민적 자존심입니다. 대한민국은 40년 만에 무려 250배 경제 급성장을 이룩한 세계 역사상 유일한 국가입니다. 지리적 위상상 지하자원이 부족하고, 분단 상황 속 대륙을 통한 수출입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우리는 열등감에서 벗어나 우리 역사적의식을 바로 잡고, 한국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역사적의식을 갖고, 우리의 존재가치를 일깨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문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문·사·철, 즉 문화예술·역사·철학입니다. 철학에는 종교를 포함합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작은 영토에서 큰일들을 많이 이뤄냈습니다. 삼국시대 때 당나라는 우리 민족을 두려워했습니다. 당나라 황실신료들은 "한국(민족은 언젠가 반드시 독립을 이뤄낼 무서운 민족이니, 하루빨리 침공을 서둘러 사내는 어린이아 부터 늙은이까지 모두 죽이고, 계집은 군사들의 위문품으로 나눠줘야 한다"고 황제에게 청했습니다. 황제도 이에 동의해 고구려와 백제를 침공했고, 고



김홍신 소설가는... 충남공주에서 태어나 1975년 현대문학 <물살>로 등단했다. 15대 및 16대 국회의원, 민족화해협력국민협의회 집행위원장, 건국대 석좌교수 등 역임한 바 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주 시민정치아카데미 원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인생사물 설명서> <단 한 번의 세상> <인간시상> 등 있다.

밝은 곳 함께 이끌면 '지성'

한국인, 보여주는 것만 급급

열등감 벗어나 자유 찾아야

역사 바로 보며 자부심 함양

지성적 역할에 종교계 책임 있어

구려 백제의 역사서를 모두 태워버리는 한편, 고구려인만 무려 20만 명을 당나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0년 후 발해의 대조영이 나타나니. 발해는 놀랄만한 발전을 거두어 지금의 북경 위치까지 당나라를 쳐들어갑니다. 과거 고구려의 영토를 회복했을 뿐 아니라 북쪽 연해주 지역으로 더 진출한 형세를 갖게 된 것입니다.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는 훗날 '해동성국'이란 명칭을 얻을 만큼 번영하게 됐습니다. 또한 당나라가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키고 신라를 공격하려 했을 때도 고구려 부흥군과 백제 부흥군은 신라와 합세해 7년 간 전쟁을 해서 당나라 군사들을 봉천까지 쫓아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힘이자 정신입니다.

우리는 민족사를 찾아내 자존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국민의 자존심이 바로 국격입니다. 또한 저는 국격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대업이 바로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통일이 아닙니다. '평화적이고 따뜻한' 남북통일입니다.

지난 8월 초에 고건 전 총리, 이세준 변호사, 한국의 환경단체들과 함께 일본 시민단체 '피스보트'와 토론을 벌인 일이 있습니다. '피스보트'는 일본의 제국주의와 그로부터 비롯된 위안부 문제 등과 관련 일

본 정부에 사과를 주장할 만큼 매우 진보적인 단체입니다. 이들과 함께 광복 70주년, 한일수교 50주년을 기념하며 평화적 민간교류의 장으로 토론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매우 건강한 시민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한반도는 일본 국가였으니 위안부도 일본 여자를 데려간 것이지 한국 여자를 데려간 것이 아니라고, 이런 과정에서 술한 사과가 있었는데 얼마나 더 사과해야 하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혼자라도 언제든 일본을 쳐들어가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일본 사람들이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것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의미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사과와 배상을 위해 한반도의 남북통일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은 과거부터 '대륙컨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술하게 다른 나라를 침략해온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남북통일이 되면 해저터널을 건설하고 일본도 대륙과 연결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대외관계에서는 물론이고 실질적으로 북한을 위해 식량, 산림녹화 등 지원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밖에도 여성의 권익향상도 중요할입니다. 실상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나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아직도 미미한 편입니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활발히 이끌어 내고, 남북 통일을 이뤄내는 등 과업을 이뤄내려면 대한민국은 강대국으로서의 면모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보여주기 급급한 삶

지구가 평지였다면 그 중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중간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서있는 곳이 중심입니다. 세상의 주인이 바로

나입니다. 주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열등감을 극복해야 합니다.

저는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집에 살립해주는 분을 따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게 꽃집에서 전화가 와서 어떤 사람이 내게 꽃을 보냈으니 집으로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한테 "꽃집에서 꽃이 오면 2cm쯤 잘라서 꽃병에 꽂아주세요"라고 일러줬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가 "에이, 이틀이면 쓰레기 될 텐데 과일이나 한 상자 보내주면 얼마나 좋아"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꽃은 매우 행복한 선물이지만, 그 아주머니에게는 '쓰레기'일 뿐이었습니다. 꽃은 시들면 치워야하지만 과일을 보내면 아주머니가 시장을 한 번 덜 갈도 되니 그렇게 느낀 것입니다. 이것은 주인이 되지 못한 일입니다. 한 순간 꽃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하면 행복할 길이 없습니다.

현재부터가 한국은 명품 천국, 성형 천국이 됐습니다. 저는 이러한 세태도 열등감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보여주는 것들에 애가 탐입니다. 누가 가르쳐줘서 생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노예가 됐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과거에 한 선배랑 선배님은 <인간 예술>이란 작품을, 저는 <인간 붓다>란 작품을 써보려고 약속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와 네팔을 수차례 다녀왔습니다. 작년 1월에도 인도에 부처님이 고행을 하셨던 곳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불가촉천민들은 풀만 겨우 먹고 자란 소들의 거름에 물을 넣고 흙을 게어 벽에 바릅니다. 그리고 그 손을 털어내 밥을 먹습니다. 그때 벽에 붙여놓은 소똥 냄새를 맡으려다 코가 부딪혔습니다. 평소 같으면 얼른 떼어내 물로 닦았을 텐데, 후여 넋너지 못한 사람으로 비추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묘하게도 거기서 향기가 났습니다. 먹을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소는 풀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하고, 거름에 남은 것은 섬유질뿐이었습니다. 그 섬유질에 흙을 개었으니 냄새가 심할리 없었습니다. 그 때 변분 깨달은 것이 나에게 약취가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내가 노력을 하지 않고 많은 것을 원합니다. 노력한 만큼만 욕심을 부려야 하는데 그렇기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약취가 납니다. 내가 느끼지 못할 뻔 남들은 모두 알 것이라고 생각하니 순간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나는 약취를 거둬내려면 노력하지 않는 욕구와 욕심을 내려놔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시시각각 이러한 깨달음을 느끼고 살면서도 머지않아 또 다른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이 때문에 스님들의 정기적인 법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한 번 깨달은 것이 끊어집니다. 끊임없이 깨닫게 해주어야 그 사람 가슴 속에 있는 어둠을 밝은 곳으로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명답'이 있을 뿐입니다. 정답을 찾으려고 행복을 버리는 사람들을 위해 스님들이 나서주셔야 합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꿀'을 나눠 주시는 이 땅의 가장 찬란한 꽃인 스님들이 부디 우리 민족의 정신사를 아름다운 향기를 만방에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오래된 앰프를 『大出力 믹싱 앰프, 스피커』로 교체하시면 구형 앰프는 30만원 보상!!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 설치가격 : 2,250,000원

• 大出力 믹싱앰프

• 법당전용 스피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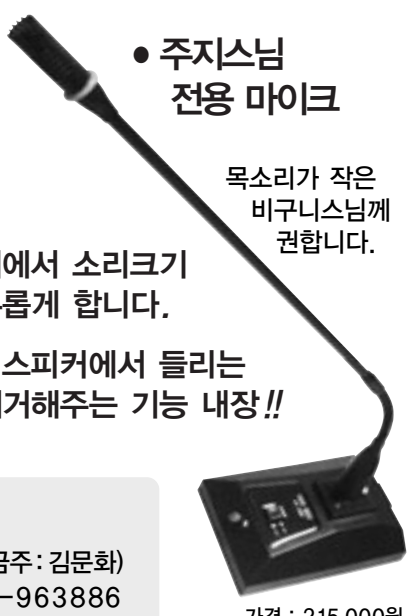
250W
350W
450W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 ◇ 앰프 구성 : 스테레오 앰프 300W 1대, 소형 믹서 5채널 1대, 탁상형 구조체마이크 1대, 시청자용 마이크 시스템 1대, CD기 1대
- 회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세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4채널 1세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내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15,000원
28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 3동 48-9 경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입니다.

제품문의 : 02)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